

“천하는 지극히 넓다” -양촌 권근-

“우리가 아는 한, 서양의 세계 탐험 이전에 가장 위대한 지도는 1402년 조선에서 제작되었다”

“Introduction to Geography: People, Places & Environment”, Dahlman, Carl H



이태리 피렌체 갈릴레오박물관 홍보동영상에 나타나는 양촌 권근의 흉상

오늘날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지도가 1402년 음력 8월 어느 날 조선에서 나왔다. <1402 강리도>의 저자 김선홍 전 외교관은 2005년 어느 봄날 상하이에서 강리도를 처음 접하고 나서 17년 동안 강리도를 연구했다. 저자는 강리도를 설명하기 전에 이탈리아 피렌체 갈릴레오 박물관에서 방영하고 있는 홍보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동영상은 2분 15초로 비교적 짧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했다. 저자는 강리도를 어떻게 설명할까 자료를 찾다가 피렌체 갈릴레오 박물관에서 홍보동영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홍보동영상은 갈릴레오 박물관에서 이태리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한다. 최초 화면은 경북 궁 근정전이 보이고 잠시 후에 양촌 권근(1352-1409)의 흉상(석상)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촌 선생의 영정도 본적이 없고, 전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 없다. 그런데 어떻게 양촌 선생의 흉상이 이탈리아의 한 박물관 홍보동영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홍보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양촌 선생의 흉상이 양촌 선생의 흉상이 맞는지, 맞다면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제작했는지 등 향후 더 자세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강리도의 원래 이름은 역대제왕혼일강리도(歷代帝王混一疆理圖)이다. 이 지도는 1402년에 만들었는데 한반도가 유난히 크다. 비율상 중국보다 더 크게 그렸다. 일본도 그렸다. 또한 강리도는 동서양을 통틀어 아프리카를 그린 최초의 지도이다. 유럽 사람들이 그린 지도에는 아프리카는 그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리도에는 아프리카의 해안선과 나일강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과학기술과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유럽의 도시 이름, 아프리카의 강 이름, 러시아의 호수 이름 등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 이태리 갈릴레오박물관은 아마도 원나라 시대 자료에 기반하고 이슬람 지도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원본은 사라져 버렸고 복사본은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리도의 시각은 한국에서 서쪽을 보면서 그렸다. 한양 성곽은 빨갭게 그렸다. 서쪽 끝부분에 아프리카 나일강이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렸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야말로 강리도의 정확성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The Human Record Vol.1”) 이 지도는 우리 조상들이 당시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물리적 세계를 재창조한 매우 창의적인 지도이다. 양촌 권근 선생의 <양촌집> 제22권 역대제왕혼일강리도(歷代帝王混一疆理圖)의 지(誌), 즉 발문에는 지도 제작 경위와 제작자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역대제왕혼일강리도(歷代帝王混一疆理圖)의 지(誌)

“천하는 지극히 넓다. 안으로 중국에서 밖으로 사해에 닿아 몇 천만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요약하여 두어 자 되는 폭(幅)에다 그리니 자세하게 기록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도를 만든 것이 대개 소략(疏擧)한데, 오직 오문(吳門) 이택민(李澤民)의 ‘성교광피도’(聲教廣被圖)는 매우 상세하게 그렸으며, 역대 제왕의 국도 연혁(國都沿革)은 천태승 청준(天台僧淸濬)의 ‘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에 갖추 실렸다. 건문(建文 명 혜제(明惠帝)의 연호) 4년(1402, 태종2) 여름에 좌정승 상락(上洛, 본관) 김공 사형(金公士衡)·우정승 단양(丹陽, 본관) 이공 무(李公茂)가 정사를 보살피는 여가에 이 지도를 참고 연구하여 검상(檢詳) 이희(李薈)를 시켜 다시 더 상세히 교정하게 한 다음에 합하여 한 지도를 만들었다. 요수(遼水) 동쪽과 우리나라 지역은 태민의 ‘평지도’에도 또한 많이 권략하였으므로,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를 더 넓히고 일본(日本) 지도까지 붙여 새 지도를 만드니, 조리가 있고 불만하여 참으로 문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다. 대저 지도를 보고서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아는 것도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한 도움이 되는 것이니, 두 공이 이 지도에 정성을 다한 데에서도 그 규모와 국량의 방대함을 알 수 있다. 근(近)은 변변치 못한 재주로 참찬(參贊)이 되어 두 공의 뒤를 따라 이 지도가 완성됨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매우 다행하게 여기는 바다. 평일에 책에서 강구하여 보고자 하던 나의 뜻을 이미 이루었고, 또 내가 다른 날 물러가 시골에 있으면서 누워서 유람하는 뜻을 이루게 됨을 기뻐하며 이 말을 지도 아래

쓴다. 이해 가을 8월 일”

세계 지도 역사상 왜 지도를 만들려고 했는지 제작 경위 등에 대한 발문을 쓴 지도는 없다. 그러나 강리도에는 양촌 권근 선생의 발문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는 양촌의 기록 외에는 다른 어디에도 관련 기록이 없다. 양촌 선생이 지도제작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발문을 남긴 것 자체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일 발문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런 지도가 1402년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영원히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좌우정승이 간여한 사실도 영원히 알 수 없었을 것이며, 특히 양촌 선생이 작성한 발문은 제작 연도, 관련자 명단, 세계관, 지도 제작 동기, 참고한 자료 등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강리도가 어떤 세계관과 동기로 제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양촌 선생은 강리도는 1402년 가을 8월에 제작했고 누가 왜 그렸는지를 상세하게 밝힌 강리도의 주인이 한국임을 알게 하였다.

양촌 선생은 강리도 발문의 제 일성으로 ‘천하는 지극히 넓다’고 밝혔다. 중국 밖으로도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이다. 지도 제작자들의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존의 지도는 세상은 넓는데 좁은 공간에 지도를 만들려고 하니 빠진 곳도 많고 엉성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특히 요동 동쪽과 우리나라 지역을 제대로 그리지 않고 생각하는 부본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만 쳐다보며 대동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조선후기의 중화적 세계관과는 사뭇 다른 세계관이다. 탈중화적이고 자주적 세계관이다. 양촌 선생은 지도의 완성으로 인해 “문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고,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소 “책에서 강구하여 보고자 하던 나의 뜻을 이미 이루었고, 또 내가 다른 날 물러가 시골에 있으면서 누워서 유람하는 뜻을 이루게 됨을 기뻐하며 이 말을 지도 아래

한국은 강리도를 제작한 강리도의 나라이다. 강리도는 한국이 문화민족이고 우수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국인의 품격과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상승시켰다. 강리도는 세상의 모든 지역을 일률적으로 축척하기보다는 조선의 시각과 조선의 세계관으로 천하를 재설정 한 불후의 작품이다. 저자 김선홍 전 외교관은 강리도는 세계 지도학계의 석학들과 권위자들이 집대성한 지도책의 표지모



김선홍(가운데) 전 외교관이 유럽의 성당, 아프리카 나일강 등이 세세하게 그려진 강리도를 설명하고 있다.



피렌체 갈릴레오 박물관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세계적인 지리책 '지도의 역사' 책에 실린 강리도를 설명하고 있다.



권해욱 회장,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 이경자 문학박사(오른쪽부터)

델로 등장할 정도로 세계사의 위대한 작품으로 인정받으며 지도의 역사에서 절대적 위상과 권위를 얻고 있는 지도이다. 또한 영원불멸의 한류의 원천이고 조선의 그 어떤 문물보다 세계사를 빛내고 있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불멸의 가치를 지닌 지도이다. 세계적인 강리도를 그린 선조들에 대해 만대에 빛날 지도를 남겨주신 선조님들께 감사드리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강리도의 가치를 모르고 있고, 한국에서는 연구조차 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아래와 같이 토로한다.

“갈릴레오 박물관(피렌체 소재)은 정부 예산 지원으로 강리도 동영상 만들어 영여. 이태리어, 중국어로 소개하고 있는데 (2022.3.19.-), 주인의 나라는 왜 그런 일을 안 하는지. 유네스코(본부: 파리)에서 2008년에 출간한 인류문화사 서적(제 4권 1580쪽)은 표지에 강리도를 올렸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지, 한국인이 그 표지를 본다면 그것이 나라 지도임을 알아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우리 문화재 중에서 강리도 만큼 세계사적 가치 빛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것인데 왜 우리는 이 지도를 만드신 선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는지.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교실 벽에는 언제

쯤 강리도가 걸릴 것인지. 우리 학생들은 언제쯤 “강리도는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밑줄을 긋는 학습을 멈출 것인지.

남아공 국회가 소장하고 있는 강리도는 남아공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는데, 주인의 나라에서는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국 국회도서관은 발트제펠러 지도(1507)가 ‘AMERICA’라는 일곱 글자를 최초로 새겼다는 이유로 그것을 독일로부터 1000만불에 사들이고 ‘아메리카의 출생 증명서 AMERICA’S BIRTHCERTIFICATE’로 기리면서 도서관 분관에 영구보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출생 증명서 강리도는 왜 그런 관심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지.

일본의 고 오부치 총리는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강리도 복제본을 남아공에 제공함으로써 외교적인 성과를 톡톡히 거두었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언제쯤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

미국 레드우드시어의 Zazzle이라는 회사는 강리도 이미지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강리도 포스터, 피죤, BTS티셔츠, 이불, 베개, 담요, 장판, 마루바닥, 커튼, 벽지, 카페 인테리어, 타일, 목도리, 캐리어, BACK BAG,

스카프, 넥타이, 손수건, 포장지, 우산, 양산, 찻잔, 숯 주전자, 숯잔, 냅킨, 보자기, 정반, 향아리, 등갓을 볼 수 있을지.

미국의 수많은 대학과 고등학교에서는 강리도를 탐구, 학습하고 있는데(관련 정보: coursehero.com) 지도의 모국인 우리나라는 왜 그러지 않는지.

실크로드학과 돈황학은 있는데 왜 강리도학은 없는지. 제2의 강리도는 언제 나올 것인지. 통일이 되는 그 날 나올 것인지.”

강리도 현상은 참으로 특이하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한류처럼 자기 나라 문화나 제품 등을 세계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강리도는 해외에서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세계의 보물로 세계화시켰는데 거꾸로 한국은 자기 조상들이 만든 탁월한 인류의 문물을 자기화시키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묘하다. 강리도는 한국의 목시록이다. 한국의 미래를 미리 그려놓은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적으로 한류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21세기야말로 강리도는 이제야 때를 만났다. 앞으로 강리도에 새긴 선조들의 뜻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후손들의 몫이다. 시야가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권행완 편집국장

아프리카를 최초로 그린 세계지도, 혼일강리도



<강리도>란? 1402(태종2년)년 조선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로서 정식 명칭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壹疆理歷代國都之圖>입니다.

이 지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당대 가장 우수한 세계 지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실려 있는 한국지도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한국전도입니다. 강리도는 최초의 한국전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당대 세계지도의 최고봉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단순한 지도를 넘어 동서고금의 역사 지리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시각문헌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더없이 소중한 자랑스러운 만대에 빛날 세계사적 문물입니다. 이러한 찬사가 생소하고 의아스럽다면 그것은 아마도 강리도가 그 모국에서 그늘에 가려진 채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지도에 대하여 우리가 내내 눈을 감고 묵언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 나라 밖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찬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충격적이다.”, “신대륙 발견(?)이전의 것으로는 가장 위대한 세계지도이다.”, “다른 모든 지도들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다.”, “광연자실하게 만든다.”,

강리도의 원본은 사라지고 없고 네 종의 필사본 혹은 수정본(모두 조선에서 15-16세기에 제작)이 일본에 전해옵니다. 현재 교토의 류코쿠대학, 나라시의 덴리대학 그리고 혼코지 및 혼묘지라는 사

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910년 교토대학에서 류코쿠대학본을 모사한 지도가 있습니다. 차례로 각급 류코쿠본, 덴리대본, 혼코지본, 혼묘지본, 교토대본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빛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1480년대 초반에 필사된 류코쿠본이 <강리도>의 대표격입니다(<1402 강리도> 책 표지). 물감에 붓을 적서 비단에 그린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164x172cm(테두리 포함)크기의 대형지도입니다. 류코쿠본을 통해 우리는 1402강리도의 원본을 보는 셈입니다. 보통 류코쿠본을 ‘1402강리도’라고 부릅니다. 지도 상단에 기다란 지도의 제목(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음)이 적혀 있고 하단에 양촌 권근의 후기가 적혀 있습니다. 지도 제목과 양촌 권근의 글이 적혀 있는 지도로서는 1988년까지 류코쿠본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덴리대본과 혼묘지본에는 없음). 현대 1988년 또 하나의 놀라운 강리도 필사본이 발견되었으니 바로 혼코지본(本光寺本)입니다.

나가사키 현의 고탄현 혼코지에 소장된



류코쿠본

이 지도가 놀랍다고 하는 것은 지도 상단에 제목이, 하단에 후기가 적혀 있을 뿐 아니라 그 크기가 220 X 289CM로서 류코쿠본의 약 두 배나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더욱 자세한 지리 형세와 더 풍부한 역사 지리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도는 두터운 종이에 그려져 있으며 접힌 채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힌 자국이 나 있고 훼손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류코쿠본에는 일본의 방위가 시계방향으로 90도 잘 못되어 있으나 혼코지본에는 바로잡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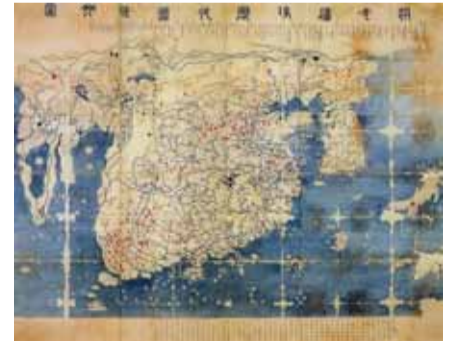
혼코지본의 출현은 강리도 연구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으며 근래에 나라밖에서는



교토대본

이 지도를 ‘1402강리도’로 소개하고 탐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류코쿠본과 혼코지본을 ‘1402강리도’로 요양하면 되겠습니다. 남아공 국회에도 이 두 지도(복제본)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례로 류코쿠본의 여러 이미지와 교토대본, 그리고 혼코지본을 소개합니다. 1402년(태종2) 완성된 이 지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눈이 아닌 당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지도의 진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빛나게 되며 국내의 강리도론이 대체로 그로 인한 오류에 빠져 있다. 당시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이 지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혼코지본

천하를 해체하여 재구성한 주체적인 세계상
중화적 세계관을 크게 벗어난 초유의 탈중화도
13~14세기 몽골시대의 지리지평과 정보가 통합된 시각문헌
아프리카를 최초로 그린 당대 세계지도의 최고봉
초광역적인 지리공간이자 역사지리정보의 보고寶庫
위풍당당한 한국에서 천하를 조망하는 옹호한 기상
물감에 붓을 적서 비단에 그린 장려壯麗한 세계

-<1402 강리도> 저자 김선홍